12
December 2018
No.7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김태경

특집
· 2019년 건설경기 전망 –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이슈진단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 이슈
·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수립 –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

연구원소식
·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제2차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2019년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발간물안내
· 건설정책리뷰 –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여세추이(與世推移)’의 현명함이 필요한 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김 태 경

한 해의 마지막 12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 주력 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국내 건설업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SOC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수주물량이 감소하며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재건축 등 민간분야 주택사업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른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까지 이어지며 위기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4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며,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업종체계 및 등록기준의 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역 개편은 이해가 상충되는 업종간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건설사가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그간 정체하며 안주하던 건설업계도 이제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응하는 ‘여세추이(與世推移)’의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협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회가 4만 2천여 회원사와 소통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미래 환경변화에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데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건설산업의 동향 파악과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혜안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건설경기 전망 –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박선구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우리 연구원은 최근 건설업 주요 지표의 동향과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건설업 중심의 “2019년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전망

■ 건설수주는 2017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8년 들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3분기까지 건설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하였고, 특히 민간부문과 건축부문의 감소폭과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건설수주는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부문의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토목부문이 일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7.9% 감소한 137조원이 예상된다.

2019년 건설수주 전망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E)			2019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발주자별	공공	47.4조원 (6.0%)	47.3조원 (-0.3%)	17.2조원 (-21.7%)	24.9조원 (-1.2%)	42.1조원 (-11.0%)	46.2조원 (9.7%)
	민간	117.5조원 (3.7%)	113.1조원 (-3.7%)	54.2조원 (-4.4%)	52.5조원 (-7.1%)	106.7조원 (-5.6%)	90.8조원 (-14.9%)
공종별	토목	38.2조원 (-16.0%)	42.2조원 (10.4%)	21.4조원 (-8.2%)	24.5조원 (29.6%)	45.9조원 (8.8%)	48.2조원 (5.0%)
	건축	126.7조원 (12.6%)	118.2조원 (-6.7%)	50.0조원 (-9.7%)	52.9조원 (-15.8%)	102.9조원 (-12.9%)	88.8조원 (-13.7%)
합 계		164.9조원 (4.4%)	160.4조원 (-2.7%)	71.4조원 (-9.2%)	77.4조원 (-5.3%)	148.8조원 (-7.2%)	137.0조원 (-7.9%)

■ 건설투자는 ’18년 1분기까지 증가하였으나, 3분기에 급락세를 보이며, 3.2%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수주에 비해 최소 2분기에서 최대 6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20년까지 부진이 예상된다. 2019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2.8% 감소한 238조원으로 전망된다.

2019년 건설수주 전망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한국은행(10월)	7.6%	-0.1%	-4.3%	-2.3%	-2.5%
현대경제연구원(9월)	7.6%	-0.1%	-1.1%	-0.6%	-2.7%
LG경제연구원(9월)	7.6%	-0.1%	-1.5%	-0.8%	-1.4%
국회예산정책처(10월)	7.6%	-0.1%	-	-1.5%	-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11월)	7.6%	-0.1%	-4.6%	-2.5%	-2.7%
대한건설정책연구원(11월)	7.6%	-0.1%	-5.0%	-2.7%	-2.8%

전문건설업 전망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건설수주 감소의 시차에 따라 2019년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18년 대비 5.2% 감소한 85.4조원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원도급은은 4.2% 감소한 24.7조원, 하도급은 5.6% 감소한 60.7조원이 예상된다.

2019년 전문건설업 도급별 계약액 전망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2019년(E)
도급별	원도급	21.3조원 (0.3%)	21.3조원 (0.0%)	23.7조원 (11.1%)	25.7조원 (8.5%)	26.8조원 (4.3%)	25.8조원 (-3.7%)	24.7조원 (-4.2%)
	하도급	50.9조원 (0.0%)	51.0조원 (0.2%)	58.0조원 (13.7%)	65.9조원 (13.6%)	67.2조원 (2.0%)	64.3조원 (-4.3%)	60.7조원 (-5.6%)
합 계		72.2조원 (0.1%)	72.3조원 (0.1%)	81.7조원 (13.0%)	91.6조원 (12.1%)	94.0조원 (2.6%)	90.1조원 (-4.2%)	85.4조원 (-5.2%)

■ 전문건설업 업종 중 계약액 기준 2조원을 상회하는 10개 업종에 대해 2019년 업종별 계약액을 전망하였다. 전망에서는 전반적인 건설경기와 함께 원/하도급 위주 여부, 건축/토목관련 공종 특성, 공사 프로세스상 선행/후행공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2019년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도급 공사가 많은 업종, 건축관련 업종, 선행공종 업종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전문건설업 업종별 계약액 전망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2019년(E)
철근·콘크리트	12.3조원	13.6조원	16.5조원	18.7조원	18.4조원	17.3조원 (-6.2%)	15.7조원 (-9.0%)
실내건축	7.9조원	8.3조원	9.1조원	10.8조원	11.3조원	10.8조원 (-4.6%)	10.1조원 (-6.2%)
토공	9.6조원	8.8조원	10.0조원	10.4조원	10.5조원	10.0조원 (-4.8%)	9.6조원 (-4.4%)
금속구조물·창호	6.5조원	6.0조원	7.0조원	7.8조원	8.1조원	7.8조원 (-3.8%)	7.4조원 (-5.5%)
미장·방수·조적	3.1조원	3.2조원	3.6조원	4.2조원	4.8조원	4.5조원 (-6.6%)	4.1조원 (-8.9%)
시설물	3.1조원	2.9조원	3.6조원	4.0조원	4.5조원	4.8조원 (6.6%)	5.0조원 (4.0%)
상·하수도	2.7조원	2.5조원	2.8조원	3.0조원	3.2조원	3.2조원 (0.8%)	3.2조원 (-1.0%)
강구조물	2.5조원	2.5조원	2.7조원	3.2조원	3.1조원	2.9조원 (-6.3%)	2.7조원 (-8.0%)
비계·구조물해체	1.4조원	1.5조원	1.9조원	2.2조원	2.3조원	2.2조원 (-3.2%)	2.1조원 (-6.9%)
조경식재	2.0조원	1.8조원	1.8조원	2.0조원	2.1조원	2.1조원 (0.0%)	2.0조원 (-3.2%)

■ 2019년 건설산업은 2018년에 비해 수주, 기성, 투자, 전문건설 등 전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업은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 이슈

박승국 연구실장 (skpark@ricon.re.kr)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건설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노사정이 합의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 개편, 등록기준 조정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업역규제 폐지를 살펴보면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한다.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진행되는 업종체계 개편은 우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이뤄진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시공능력과 연관성이 낮은 자본금 기준은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한다. 기술자 등록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술자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력요건을 추가하도록 해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과 전문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위해서는,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종합업체에게 허용하는 보호방안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생산체계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1년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민간공사에 적용하게 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혁신방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체는 변화되는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경영전략과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공정하게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들의 컨소시엄 구성 방식, 전문과 종합의 상호 실적 인정 기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보호 등의 향후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업종의 통합 계획은 현재 29개의 전문업종 각각의 실정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유사업종을 중심으로 소규모 개편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개편은 금번 업종개편의 첫 번째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건설산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요건은 낮아지고 기술능력 요건은 강화되는 만큼, 이에 따르는 업계의 부담이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역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통하여 산업의 유연성을 키워 종합과 전문건설업이 공생발전하여,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수립 –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2차원의 설계에서 3차원의 설계로, 기존의 수동 장비, 검측에서 자동시공, 검측 및 AI기반 관제로, 육안 점검에서 드론 등에 의한 점검 및 유지관리로, 건설산업이 낡은 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설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 혁신이 추진된다.

10월 31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스마트 건설 기술에는 건설 대상 부지를 드론이 항공 촬영하여 신속 정확하게 자동 측량하는 기술이나, 원격 관제에 따라 건설장비들이 자율 작업 진행하는 기술,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부재들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술,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동설계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건설기술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발전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는 2차원 설계 기반 납품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기술과의 분쟁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한다.

두 번째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핵심 기술을 보급하고,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발주청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2003년부터 운영 중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지식플랫폼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에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건설 산업의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딛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건설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로드맵에서 수립된 방향성에 따라 지금의 생산과정을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원격 제어되는 건설장비 기술이나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부재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산업의 생산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계는 현재의 현장 시공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최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이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11월 15일(목) 오후 3시,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축사와 김용수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환영사로 시작하여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시사점'발표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현장의 공기일수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공공 건설사업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우리보다 선진화된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공사기간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수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안정훈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 이오성 LH공사 고객품질혁신단 단장, △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 △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 소장, △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공공공사 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서명교 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공사 기간 확보는 건설 산업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공공사에서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11월 19일(월) 오전11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연구원 자문위원이신 △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 이복남 서울대 교수, △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 △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참석하여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이종광 연구기획위원)과 2019년 건설경기전망(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18.11.7.)」에 의해 건설산업의 업역규제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므로, 향후 변화되는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전문건설업의 대응전략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전문건설업의 경기는 예년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문건설업체가 불확실한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19년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삼정호텔 마리룸(1층)에서 "2019년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및 전문건설 경기전망을 통해 건설업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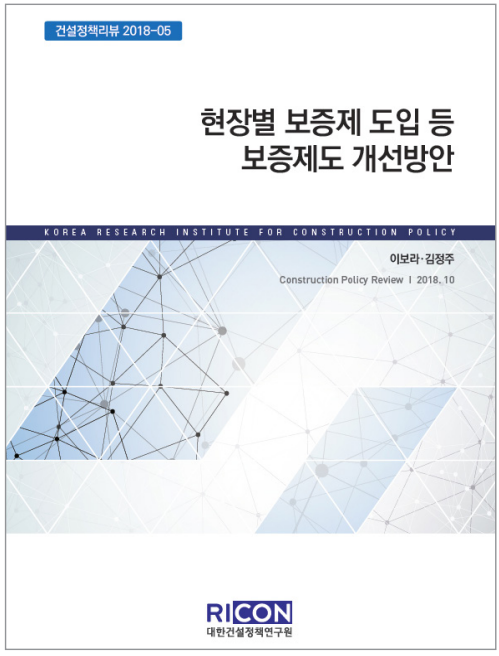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축사로 시작하여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9년 건설경기 전망"을,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9년 해외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덕호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박정혁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서기관, △ 김예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유선종 건국대학교 교수, △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 △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차장, △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정상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지원본부장이 내년도 국내·외 건설경기 전망에 대한 평가와 건설기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서명교 원장은 "2019년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건설경기 완충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기본을 지켜야 하며, 선별 수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발간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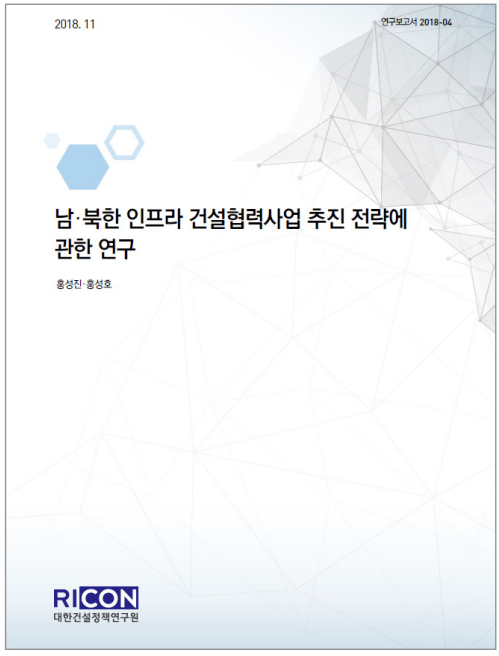
건설정책리뷰 –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및 보증 간소화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현행 건설기계별 개별보증에서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별 보증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1안은 5천만 원 이상 및 1년 이상의 전문공사, 2천만 원 이상 및 3개월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단계별 보증범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별 보증의 범위를 바탕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기계보증의 체납 및 보증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남·북한의 인프라 건설협력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 인프라 건설 역시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인프라 관련 법제, 농업·주택·교통·전력 및 에너지·산업 및 관광단지 인프라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건설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에서 대응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건설산업의 발전,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남·북한 평화체제 유지에 실질적 제언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TEL:(02)3284-2600(代) FAX:(02)3284-2620 http://www.ricon.re.kr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77호)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편집** 경성문화사